

“더 많이 생각나는 아들, 딸...잔인한 4월 없었으면”

세월호 11주기 선상 추모식·기억식

유가족·416재단 등 70여명 진도 맹골수도서 추모식
‘세월호 부표’ 위로 흘날리는 단원고 벚꽃에 흐느낌만
목포신항서 기억식...이태원·제주항공 참사 유족 동행

“1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픔이 가시질 않습니다. 너무나도 보고 싶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에게는 잔인한 달, 4월이 왔다. 수학여행을 갔다가 차가운 바다 속에서 구조를 기다렸을 아이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하늘의 별이 된 지 11년이 지났다.

세월호 참사 11주기 선상 추모식이 열린 16일 오전 7시 30분께 목포시 죽곡동 목포해경전용부두를 찾은 0416단원고가족협의회 세월호 유가족들은 가장 가까이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진도 앞 바다로 출항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세월호 유가족 27명을 비롯한 416재단 관계자 등 75명은 이날 오전 7시 30분 해경 함정 3015함(3000t)에 탑승해 사고 현장인 진도 맹골수도로 출항했다.

배로 3시간 걸려 도착한 진도군 조도면 맹골수도 앞바다. 꽃다운 아이들을 집어삼킨 바다는 ‘세월호’가 적힌 노란 부표를 흔들고 있었다.

참사 시각인 오전 10시 30분. 추모식이 진행됐다. 뱃전에서 희생자 304명을 기리는 조포(弔砲) 포음 3발이 울렸다.

희생된 단원고 학생 250명의 이름이 불리자 유족들은 하나둘 흐느꼈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모든 아이들의 이름이 하나씩 불릴 때마다 유족들은 이름 하나하나를 되새기며 눈물을 흘리거나 눈을 질끈 감고 두 손을 모았다.

유가족들은 자녀들의 이름을 목놓아 외치며 바다를 향해 꽃을 던졌다.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애달픈

목소리와 울부짖음에도 아무 대답도 없었다.

한 희생자 아버지는 “아빠 소리 들리나, 아빠는 매일 네가 보고 싶어 죽겠다. 아빠가 현화할게 잘 받아라”고 소리쳤다.

다른 희생자 어머니는 “엄마는 여기 다녀가야 한 해가 시작되는 것 같아. 사진을 보면 얼굴은 생각이 나는데 목소리가 생각이 안 나. 행복하게 잘 지내야 해”라고 울부짖었다.

유가족들은 또 단원고 교정에 핀 벚꽃도 참사 해역에 흩뿌렸다. 바다 위에 뿌려진 흰 국화와 분홍색 벚꽃은 슬픔을 더했다.

유가족들은 노란 리본에 소원을 적어 선상에 마련된 벚꽃나무 조형물에 매달기도 했다. 벚꽃나무는 ‘사랑하는 딸 영원히 잊지 않을게’,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11년, 잊지 않겠습니다’ 등 메시지가 적힌 노란 리본으로 가득했다.

김정화 0416단원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오늘 선상추모식을 준비하면서 비가 내리는 걸 보고 우리 아이들의 눈물이 아님이 생각했다. 4월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든 날인데 출기까지 하니 마음이 더 힘들었다”며 “4월 달력을 찢어버릴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인사말 중 목에 메어 몇 번이나 말을 잊지 못한 김 위원장은 “교복 입은 학생들만 보면 세상에 없는 걸 알면서도 혹시 내 아이가 아닐까 마음을 졸이며 따라다녔다. 지금은 장성한 청년들을 보면 어떤 모습으로 성장했을까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궁금하다”며 “우리 아이들이 보고 싶고, 너무나 미안하고



세월호 참사 11주기인 16일 오전 진도군 맹골수도 인근 세월호 참사 해역에서 열린 선상추모식에서 유가족들이 사고현장을 바라보며 한화하고 있다.

사랑한다.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단원고 2학년 3반 고(故) 김빛나라양 아버지 김병권(60)씨는 “보고 싶은 아이를 왜 바다를 보며 소리쳐야하는지 아직도 모르겠다. 한 해 한 해 잊히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생각한다”며 눈물을 보였다.

사고 이후 ‘아빠 무서워. 빨리 와 줘’라고 전화 온 딸에게 ‘선생님 말씀 듣고 기다려라’라고 말한 건 김씨에게 가장 후회스럽고 괴로운 일로 남았다. 김씨는 “지금이라도 숨기지 말고 진상규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선상 추모식을 마치고 세월호 선체가 놓여있는 목포 신항으로 옮겨 기억식 행사를 치렀다.

세월호 잊지않기목포지역공동실천회의가 개최한 기억식에는 0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뿐 아니라 10·29이태원참사 유족과 12·29제주항공참사 유족도 함께했다.

그날의 아픔이 묻어있는 녹슨 세월호 선체 앞에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곡과 ‘천개의 바람’ 연주가 울려 퍼졌고, 시민들도 희생자들을 기렸다.

2학년 8반 고 이호진군 어머니 김성희씨가 먼저 떠난 아들에게 쓴 편지를 낭독하자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는 참가자들도 눈에 띄었다.

김씨는 “호진아, 네가 태어나서 처음 말이 트이고 엄마를 불렀을 때 벅하고 감격했는데 네가 떠난지

도 열하고도 한 해째 또 그날이 됐다”며 “벚꽃나무 옆에서 활짝 웃는 네 사진을 보고 그 나무를 찾아서 해마다 사진을 찍고 한참을 서있다 오곤 했다”고 말했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고 이해린씨 아버지 이종민씨는 연대사에서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는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못해 발생한 필연적 사고다. 국가는 침묵했고, 방치했으며 더욱 비통한 것은 참사 이후 진상규명과 책임소재 파악을 방해했다”며 “이제 국가의 무능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의 잘못을 명백히 밝혀내고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목포·진도 글·사진·양재희 기자 heestory@

여권·통장 압수 다반사...전남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여전

광주인권사무소, 정책 개선 토론회
쉬는 날 없이 하루 12시간 노동
산재보험 가입도 5년째 제자리
부당함에 침묵하는 구조 바뀌어야

전남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여전히 인권 침해를 당하고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등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등은 16일 전남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전남 외국인 노동자 정책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영암에서 발생한 네발 국적 외국인 노동자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농축산업 분야 외국

인 노동자 정책의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발제자로 나선 이보람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장은 “계절노동자 상당수가 여권과 통장을 고용주나 브로커에게 압수당했고, 자신이 어디서 일하는지도 모른 채 일하거나 고용주의 지시로 타 사업장에서 일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의 2020년 어업 외국인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 평균 휴일은 고작 0.1일,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2시간, 월 평균 노동시간은 359.9시간이었으며 법정 최저임금보다 120만원 가량 낮은 월급을 받는 등 기본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 팀장은 외국인노동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있다는 실태도 지적했다.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산재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노동자 수는 2019년 42만 9698명에서 2019년 45만 1449명, 2020년 41만 1848명, 2021년 40만 2837명, 2022년 44만 157명 등으로 제자리걸음이었다.

한국 국적 노동자에 비해 외국인노동자가 사망사고가 더 많은 통계도 나왔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외국인 노동자 가입자 수는 전체 노동자의 2.8~3.3% 안팎이지만, 전체 산재 사망자 중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은 매년 4.9~6.8%를 기록했다.

산재보험 가입자 수 대비 산재사망자 수를 가리키는 ‘산재사망만인율’도 외국인노동자는 1만 명 당 2.5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한국 노동자(1.5명)보다 1.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팀장은 ‘계절근로자 브로커’를 통해 임금에

서 수수료를 뜯기고 여권·통장 압수, 연대보증 요구, 계약 외 강제노동 등을 당한 필리핀 출신 노동자의 사례를 들며 계절근로자 제도 내에서 인권침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통제가 아닌 권리 보장”이라며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용주의 눈치를 보며 부당한 일을 당해도 침묵하게 만드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죽음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남외국인 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지난 2월 영암군 서호면의 돼지농장 기숙사에서 네발 출신 노동자 A(28)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농장주를 A씨에게 폭언·폭행·무급노동 등 인권침해를 가한 혐의(폭행·모욕)로 고발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푸른 눈의 시민군’ 돌린저 ‘광주 명예시민증’ 받는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 5·18 기간 광주에서 시민군으로 활동하며 세계에 5·18의 진실을 알려 온 데이비드 리 돌린저(미국·사진)에게 오는 5월 14일 ‘광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1956년생인 데이비드는 5·18 당시 계엄군의 시민 진압을 목격한 뒤, 사상자를 파악하고 처참한 광주 현장을 촬영했다.

이후 계엄군의 무전기 감청 임무를 수행하며 시민군들과 함께 전남도청에서 하룻밤을 지냈다.

데이비드는 5월 26일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일사의 외신 기자회견에서 통역을 맡기도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

전문건설인 대한민국을 세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40주년 **혁신적인 건설문화를 선도합니다!**